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정부는 그동안 국내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한 원인을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의 기술적인 요소에 국한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부실 공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 이외에 다른 중요한 요소, 즉 건설 공사의 제 단계에 적정 공사비의 반영 여부가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 왔다.

발주자 측면에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한 예산액이 산정되지 않고, 또한 건설 공사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고수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된 물가 억제선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국내 건설산업에서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입찰자 측면에서도 최근 일반건설업체의 수가 몇 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가 어려워지자 당해 공사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견적이 수행되지 않고, 공사 수주에 급급한 나머지 전략적으로 투찰 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건설 공사에서 발주자나 입찰자는 공사 수행 지역, 공사 특성, 공사 규모에 대하여 공사비를 보정할 수 있는 지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적산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1999년부터 이를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현실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실적공사비적산제도가 현행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와 공사 수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